

# 서울 학생 수 2만여명 ‘뚝’… 황금돼지띠 중학생만 늘어

올 초·중·고 학생 수 1.6%p 줄어  
2007년 출산 붐에 중학생만 증가  
학교 수 늘었지만 학급 수는 감소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가운데 올 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만여명 줄어 90만4705명으로 집계됐다. 초·중·고 학생 수는 82만7534명으로 전년 대비 1.6%p 감소했지만, 2007년 ‘황금돼지띠’ 출산 붐에 태어난 2007년생이 포함된 중학교 집단에서만 1.5%p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학급편성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 중학교 2곳·유치원 2곳 등 총 4개교 증가

전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수는 2160개교로 2156개교였던 전년 대비 4개교 증가해 0.2%p 늘었다. 이 중 초·중·고 학교 수는 1316개교로 전년(1314개교) 대비 2개교(0.2%↑) 증가했다.

<서울시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수 추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2017년 대비
유치원	88,910	85,054	77,630	74,717	69,676	△5,041 (6.7%)	△19,234 (21.6%)
초등학교	428,333	424,800	422,293	409,536	400,808	△8,728 (21%)	△27,525 (6.4%)
중학교	227,001	216,330	207,413	207,081	210,229	3,148 1.5%	△16,772 (7.4%)
고등학교	283,229	259,977	237,012	224,483	216,497	△7,986 (3.6%)	△66,732 (23.6%)
특수학교	4,457	4,397	4,362	4,430	4,451	21 0.5%	△6 (0.1%)
각종학교	3,287	3,257	3,237	3,141	3,044	△97 (3.1%)	△243 (7.4%)
계	1,035,217	993,815	951,947	923,388	904,705	△18,683 (2.0%)	△130,512 (12.6%)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학생 수는 1.5%p 증가해 21만 229명으로 전년 대비 3148명 증가했다. 이는 현 중학교 2학년생이 태어난 2007년 ‘황금돼지띠’ 출산 붐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 ◆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3.8명…전년 동일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3.8명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다.

초등학교는 22.8명으로 0.2명(0.9%p)이, 고등학교는 24.2명으로 0.6명(2.4%p) 줄었다. 반면 중학교는 25.5명으로 2.8%p인 0.7명 증가했다.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 추세지만,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증가 또한 황금돼지띠 재학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서울시교육청의 일관된 정책방향”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국정과제로 서울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초등학교는 607개교, 고등학교(320개교), 특수학교(32개교), 각종학교(16개교)로 변동이 없다. 중학교는 389개교로 0.5%p인 2개교 증가했다.

전체 유치원 수는 796개원으로 전년 대비 2개원 늘었다. 2017년 대비로는 86개원 줄어 감소세가 무려 9.8%p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대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공립 유치원은 전년 대비 19개원 증가해 7.4%p 증가했으며, 2017년과 대비하면 68개원 늘었다. 4년 새 32.7%p 증가한 셈이다.

◆ 456학급 감소…전년대비 1.1%p 줄어 학교 수는 늘었지만 학급수는 무려 456학급이 감소하며 학령인구 감소 수치가 반영됐다.

전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학급 수는 4만 928학급으로 전년(4만 1384학급) 대비 456학급 줄었다. 감소 세는 1.1%p다.

이 중 초·중·고 학급 수는 3만 6153학급으로 3만 6547개교던 전년 대비 394학급 감소했다. 특히 초·중·고 중 고등학교 학급이 크게 줄었다. 고등학교는 9194학급으로 130학급감소하며 1.4%p 줄었고, 중학교는 8563학급으로 99학급(1.6%p) 줄었다.

(1.1%p)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1만 839학급으로 165학급(0.9%↓) 줄었다.

유치원은 3712학급으로 1.6%p인 62학급 감소했고, 특수학교는 4학급 증가, 각종학교는 4학급이 감소했다.

## ◆ 학생 수 2만여명 감소…중학생만 증가

전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수는 90만 4705명으로 92만 3388명이던 전년 대비 1만 8683명 줄었다. 지난해 대비 2.0%p 감소한 셈이다. 이 중 초·중·고 학생 수는 82만 7534명으로 전년(84만 1100명) 대비 1만 3566명(1.6%p) 줄었다.

## 순천향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기술 인정

국제 저명 학술지에 연구 연속 게재  
BK21 4단계 사업 통해 인재 양성  
다양한 산업 상용화 가능 기술 개발



문제점인 기판 위의 정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균일한 코팅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 논문 ‘비전도 성 기판에서 고효율 전기 스프레이 코팅 방법: 초발수 코팅의 응용’은 미국 화학학회지인 응용 재료 및 인터페이스 저널에 발표됐다.

연구를 통해 얻은 스프레이 기술은 방수 코팅, 방지문 코팅, 표면의 항바이러스 처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 가능하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이전 과정을 통해 상용화 과정을 추가

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권 교수는 삼성전자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산학협력 공동 연구를 수행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성 도선을 직접 프린팅 방식을 사용해 투명 터치스크린 센서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

스프레이 기판에서 양면의 전극을 이어줄 수 있는 3차원 표면 프린팅 기술도 개발해 비아홀을 이용하기 어려운 유리 기판 등에서 양면의 전극을 직접 프린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도 거뒀다.

/이현진 기자

## 서울디지털대 6개전공 신설… 입학생 전원 장학

###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서울디지털대학교가 13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대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학과인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소방방재학과를 신설한데 이어 2021학년도 6개 전공을 신설해 9개학부 30개학과·전공으로 대학편제를 개편했다.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학과는 탐정, 보건의료행정, 뷰티미용, 군경소방상담, 국방융합인재, 외식조리경영 등 6개 전공을 포함해 상담심리, 사회복지, 컴퓨터공학, 미디어영상, 영어, 중국, 부동산, 회화, 디자인, 패션, 실용음악학과 등 30개에 이른다.

코로나19 극복 전국민 응원을 위해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장학 혜택 대상

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특성화고 및 고졸검정고시 학력자가 신입학하거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신·편입학 시 두 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학사편입학으로 입학 시에는 두 학기 연속 40%의 수업료를 감면 받는다. 등록금은 학점당 6만 3000원이다.

또 군·경·소방관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부여하며 군·경·소방·산업체위탁 공무원 가족, 다문화가정, 귀화허가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으로는 입학금 및 30% 이상의 매학기 수업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군에서 취학추천을 받지 못한 부사관들도 반값 등록금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수혜받는 국가장학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오는 13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 중 최다 학과인 총 8개 단과대학(학부), 총 38개 학과(전공)에서 2021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중인 학과(전공)는 ▲사회복지 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청소년복지전공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와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소프트웨어융합전공, 국제협력·북한 전공, 직업·진로상담전공, 국방융합관리전공, 온라인커머스전공, 로봇융합전공(신설) 등이다. /이현진 기자

## 성균관대-육군사관학교, 교육·연구 협약

### 공동연구·학술회 공동 개최



성균관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와 교육 및 연구 분야의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과 김정수 육군사관학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교는 본 협약을 바탕으로 ▲교수 및 학생·생도 상호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 공동 개최 ▲학술자료 및 출판물 등 정보 상호 교환 ▲교육 및 복지 시설물의 상호이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렬 총장은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교육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양교가 더욱 발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육군사관학교장도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연구역량 갖춘 성균관대 육군사관학교가 본 협약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양교가 미래 교육 혁신을 주도하며 미래 인재 양성의 산실로 도약·발전할 수 있도록 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가톨릭대, 부천시와 골목상권 활성화 협업

###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 사업’ 선정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가톨릭대 대학생들이 나선다.

가톨릭대학교는 ‘역곡동 대학로 상인회’와 함께 학교 앞 골목상권을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도청 산하 공공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가톨릭대는 최근 진흥원의 사업 공모에서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가톨릭대는 학생들 스스로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천시 역곡동 대학로 문화공간을 기획하고, 그 기획을 역곡동 대학로 상인회 상인들과 함께 완성하는 형태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프로젝트에서는 ▲가톨릭대 학생 대상 대학로 육구 조사 ▲역곡동 대학로 상인회 대상 수요 조사 ▲대학생 육구 및 상인회 수요 기반 맞춤형 프로젝트 설계 ▲주요 참여 전공별 교과 연계 프로젝트 수업 진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